

G. 유통

티메프사태, 중소커머스 폐업 및 상위권 업체로의 쏠림 야기

연구위원 김남훈

※ Summary :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액이 1.3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정산기한 단축, 이커머스업체의 PG기능 분리, 에스프로 의무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 규제 강화에도 온라인 셀러의 오픈마켓 신뢰성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이어지며 유통사 및 대형 플랫폼 위주로 입점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경쟁 구조에 변화가 예상. 특히 소비심리 위축과 겹쳐 최근 사태에 따른 소비자 및 판매자 이탈 등으로 업력이 오래된 오픈마켓형 중소 이커머스업체들도 폐업과 서비스 중단이 늘고 있어 상위업체 중심의 소비자 락인효과가 커지고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

■ 티메프 사태 發 피해액 1.3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 관련 규제 강화 예상

- 금감원에 따르면 집계된 미정산 피해액은 1.3조원, 피해업체는 4.8만개에 이르고 피해 규모(1억원 이상)가 큰 소수가 피해액의 대부분(88.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
 - 미정산액이 1백만원 이하인 업체들이 69.3%, 1천만원 이하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
-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PG업무(결제대행) 분리 및 정산기한 단축, PG사의 인적·물적 요건 강화 및 에스프로 의무화 등 전자금융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
 - 부재하던 정산주기를 40일로 제한하고, 이커머스업체들의 PG등록, 제3자 위탁 의무화 예정
- 소수 업체를 제외하면 판매자 피해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나 유사 사업모델을 갖던 커머스업체 '알레츠'를 포함 다수가 폐업하며 이커머스업체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커진 상황
 - 알레츠는 티메프와 유사한 오픈마켓으로서 '23년 영업손실액이 104억원이며 자본잠식이었던 상황

표1 | 금액대별 미정산금액 분포 (단위: 개, 억원, %)

구분	판매점 수	비중	금액	비중
~ < 1백만원	33,350	(69.3)	76	(0.6)
~< 1천만원	10,143	(21.1)	338	(2.6)
~ < 1억원	3,650	(7.6)	1,114	(8.7)
~ < 10억원	773	(1.6)	2,253	(17.6)
~ < 30억원	134	(0.3)	2,249	(17.6)
~ >30억원	74	(0.2)	6,759	(52.9)
계	48,124	(100.0)	12,789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표2 | 업종별 미정산 금액 분포 (단위: 개, 억원, %)

구분	판매점 수	비중	금액	비중
디지털·가전	4,607	(9.6)	3,708	(29.0)
상품권	28	(0.1)	3,228	(25.2)
식품	8,479	(17.7)	1,275	(10.0)
생활·문화	14,422	(30.0)	1,129	(8.8)
패션·잡화	6,759	(14.0)	801	(6.3)
여행	287	(0.6)	795	(6.2)
뷰티·헬스	3,097	(6.4)	481	(3.8)
전자상거래	14	(0.0)	415	(3.2)
스포츠·레저	3,209	(6.7)	254	(2.0)

자료 : 기획재정부